

환희·감동·나눔...KIA 'V11' 뒤편이 훈훈

팬과 함께 한 V11 팬 페스트

예매 전쟁·암포 등장...전국서 6천여 팬들 모여

통합 우승 등 을 시즌 돌아보며 즐거운 잔치

양현종 '우승 공약' 걸그룹 댄스에 팬들 환호성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 호프·선수과 식사 경매도

김기태 감독 "안주하지 않고 팬 사랑에 보답하겠다"

“2017시즌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10번 타자’들과 우승의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KIA가 지난 1일 광주여자대학교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선수단과 팬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KIA타이거즈 V11 팬 페스트’를 열고, 8년 만의 우승을 자축했다. 1일 오전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 활동을 했던 선수단은 2일 오후에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 호프를 갖고 팬들과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우승의 여운이 가득했던 팬 페스트
예매 전쟁에 이어 암포 판매까지 이뤄질 정도로 팬 페스트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발길을 한 팬들은 ‘V11’을 이룬 선수들과 우승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선수단과 우승 트로피 입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서한국 응원단장이 이끄는 응원단의 등장과 함께 돌아올랐다. 서 단장의 구호에 맞춰 라인업 송을 열창한 팬들은 남행열차 등을 함께 부르며 올 시즌 관중석을 압도한 팬들의 위엄을 보여줬다.

우승 멤버들의 토크쇼에 이어 선수들의 끼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됐다. “음악에 몸을 맡겼다”는 고졸 1년 차 투수 유승철은 ‘고음 불가’의 노래 실력과 과격적인 무대매너로 이날 화제의 인물이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역시 양현종이 중심이 된 ‘걸그룹 댄스’였다.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MVP에 빛나는 양현종이 올 시즌을 앞두고 내세웠던 우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심동섭, 홍건희, 임기영, 김윤동 등 후배 투수들을 이끌고 무대에 섰다.

정장 차림으로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에 맞춰 춤을 춘 5명의 투수는 이어 여장을 하고 등장, 선미의 ‘가시나’ 무대를 선보였다. 무용학원에 다닐 정도로 열정적으로 무대를 준비했던 ‘5인방’의 몸짓에 행사장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양현종의 강권에 무대에 선 8년 차 심동섭은 “여자친구가 영상을 보고 더럽다고 하더라(웃음). 처음 학원에 가서 5시간 정도 연습을 했었다. 연습했을 때보다는 호흡이 잘 맞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무사히 공연을 끝낸 소감을 밝혔다.

우승을 지휘한 김기태 감독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팬들과 함께했다.

이날 우승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김 감독은 ‘최강기아’가 쓰인 수건을 반씩 들어 올려 팬들의 환호를 끌어낸 뒤 “올 한 해 팬들이 가장 큰 힘이 됐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선수단과 구단, 프런트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여

러분의 사랑에 더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좋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KIA 타이거즈 만들어서 또 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그리고 선수들 을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 준비 잘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시즌 만들도록 하자”며 선수단을 독려한 뒤 “겨울 잘 춥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눔으로 풍성했던 시간
KIA 선수단은 2일에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와 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팬이 찾아 장사진을 이뤘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선수단과의 식사’에는 서동욱, 양현종, 이명기, 안치홍, 심동섭, 홍건희, 문경찬, 박준태, 김윤동 9명의 선수가 각각 최고액을 써낸 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직접 서빙을 하며 나눔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팬들을 맞이했다.

비행기 결항으로 귀국이 늦어지면서 전날 팬페스트에 참가하지 못했던 ‘해결사’ 최형우도 이날 일일호프에 참가해 새 팀에서의 첫 자선 일일호프를 지냈다.

최형우는 “전날 직접 후배들의 공연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다. 영상으로는 봤다(웃음). 몸은 피곤한데 좋은 행사에 참가해서 좋다”며 부지런히 행사장을 오갔다.

트레이드를 통해 제2의 야구 인생을 연 이명기도 “시즌 중에도 늘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사인회도 그렇고 일일호프에도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놀랐다. 이렇게 많은 팬과 행사를 하게 돼서 좋다”고 밝혔다.

각각 2차 드래프트와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와 넥센으로 이적한 두 좌완 고효준과 이승호도 행사장을 찾아 좋은 일에 나선 옛 동료들에게 힘을 더했다.

한편 이날 경매 물품으로 나온 김기태 감독 선글라스, 김주찬 배트, 최형우 통패딩 점퍼, 안치홍 헬멧 및 고글, 임기영 국가대표 유니폼 등이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날 행사 수익금은 전액 차영화 코치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를 마친 김주찬 상조회장은 “많은 팬들이 찾아주셔서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며 “차영화 코치님이 완쾌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전해져 쾌차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선 1일에는 선수들과 구단 임직원이 광주 북구 임동 기초수급 가정과 지역 아동센터에 쌀과 김치,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도 펼쳤다.



지난 1일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V11 팬페스트에 참가한 팬들이 최강기아 수건을 들고 행사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팬페스트에서 걸그룹댄스를 선보인 심동섭(뒷줄 왼쪽부터), 양현종, 김윤동, 홍건희(앞줄 왼쪽부터), 임기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일보 일일기자로 나선 임기영이 2일 진행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은 팬들과 꽃반침을 하고 있는 유승철.

KIA타이거즈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수단과 함께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따뜻

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쇼” 별명 영광...KIA서 많은 사랑 받아”

롯데 이적 고효준, 일일호프에 200만원 성금 기탁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별을 말하는 투수 고효준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2017 한국시리즈에서 KIA 타이거즈의 투수로서 ‘우승 반지’를 겹쳤다. SK 시절 두 차례 우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었던 고효준은 한국시리즈 5차전이 끝난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우승이라는 걸 하게 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고효준은 내년 시즌 통합 2연패가 아닌 롯데의 26년 만의 우승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게 됐다.

그는 지난달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롯데 선택을 받으면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2016년 7월 트레이드를 통해 KIA 선수가 됐던 그는 1년 반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자신이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팀으로 돌아가게 됐다.

새 출발을 앞둔 고효준은 지난 2일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행사장을 찾아 우승을 함께 한 동료들과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고효준은 이날 차영화 코치를 돕기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내면서 KIA에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고효준은 “이렇게 떠나게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롯데는) 처음 야구를 시작한 팀인데 1년 만에 방출됐었다. 이렇게 다시 롯데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 감정이 든다. 우승의 기운을 물고 간다고 말



씀을 해주신다. 롯데도 내년 시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 새 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곳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소(고효준+커쇼)라는 별명으로도 불러주셨는데 영광이었다. 좋은 기억 많이 가지고 간다”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여자골프, 4대 투어 대항전 더 퀸즈 2연패 좌절

일본과 결승전 1무3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4대 투어 대항전에서 일본에 이어 준우승했다.

KLPGA 투어는 3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파72·6400야드)에서 열린 4대 투어 대항전 더 퀸즈(총상금 1억엔) 마지막 날 결승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와 경기에서 1무 3패로 졌다.

이날 포섭(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로 경기하는 방식) 매치플레이로 열린 결승전에서 한국은 4개 조가 출전해 1승도 따내지 못하면서 대회 2년 연속 우승에 좌절됐다.

올해 3회째인 이 대회에서 한국은 지난해 2회 대회에서만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500만엔(약 4억3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700만엔이다.

한국은 첫 조로 나카 배선우(23)-이정은(21) 조가 일본 스즈키 아이-유에다 모모코 조에게 3홀 차로 패했고, 2조의 롯데 소속 김지현(26)과 김해림(28) 역시 나리타

미스즈-히가 마미코 조에 2홀 차로 무릎을 꿇었다. 올해 JLPGA 투어 상금왕 스즈키와 KLPGA 투어 상금 1위 이정은은 ‘자존심 대결’에서 스즈키가 웃은 셈이다.

이후 3조는 고진영(22)-김자영(26) 조가 호리 고토네-류 리츠코 조와 비겼고, 마지막 4조는 오지현(21)-김지현(26) 조가가와기시 후미카-니시아마 유카리 조에게 한 홀 차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첫날 포블(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각자의 공으로 경기한 뒤 좋은 성적은 팀 점수로 삼는 방식)에서 4전 전승,

2라운드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9경기 가운데 8승을 쓸어담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으나 정작 마지막 날 결승에서 힘을 쓰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라운드까지 승점이 KLPGA가 24점, JLPGA는 12점으로 두 배 차이가 났지만 1, 2라운드 성적은 마지막 날 결승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대회 방식도 일본의 우승에 작용했다.

3, 4위전에서는 호주여자프로골프(ALPG) 투어가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를 5-3으로 꺾었다.

/연합뉴스

허영택 단장, KIA 대표이사 승진

KIA 타이거즈가 ‘V11’을 이룬 허영택 단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KIA는 4일 자로 허영택 단장(전투·사진)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KIA 대표이사를 겸직했던 기아자동차 박한우 대표이사는 겸직해제 한다.

신임 허영택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10월 KIA 타이거즈 단장으로 취임한 후 구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TEAM 2020’ 등을 기획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구단 운영을 바탕으로 올 시즌 100만 관중 돌파와 통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허영택 대표이사는 KIA 타이거즈 단장으로 자리를 옮기

기 전까지 기아자동차 인사팀장에 이어 독일과 슬로바키아 공장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기자자동차 총무실장과 현대자동차 총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1960년생인 허영택 대표이사는 지난 83년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